

## 문화 전령에서 모범적 황국신민으로 : 대구지역 사범교육의 변동을 사례로\*

이 경 숙\*\*

- I. 들어가며
- II. 문화 시대, 민립 사범교육들의 명멸
- III. 대구지역 민립 사범교육의 희망
  - 1. 사립대구사범학교, 그 짧은 문화화 소명
  - 2. 기독교의 사범교육, 일상 속 미국식 표준
- IV. 관립대구사범학교로 귀속과 모범적 황국신민 양성 기획
  - 1. 경상북도공립사범학교 설치와 폐지
  - 2. 관립대구사범학교의 신설과 교육방침
- V. 맺으며

### 국문초록

이 글은 근대적 사범교육이 도입된 시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대구지역 사범교육의 체제와 교육방침을 통해 사범교육이 양성하고자 한 인물상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을 관공립사범학교에만 한정하지 않고 민간의 다양한 사범교육과정들까지 포함했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6083280). : 이 글은 영남문화연구원 주최 학술대회 「2022년 영호남의 대화」(2022.12)에서 발표한 원고를 대폭 수정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연구원[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Youngnam Culture Research] / loworld@hanmail.net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에서 1905년 전후하여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될 때 대구에서는 1906년 관찰사와 광문사(일명 달성광문사, 대구광문사) 등이 협력하여 사립대구사범학교를 세웠다. 사립대구사범학교를 통해 지역민들은 문명화의 소명 아래 사범학교 학생들을 장차 문명화를 전달하는 전령으로 키우려고 했다. 다른 민간 사범교육 형태 중 하나로 기독교가 중심이 된 사범교육도 있었다. 미션스쿨 부설 사범과, 성경학교, 주일학교 등을 통해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들의 미국식 아동관과 교육관을 지역민들에게 전파하고자 했다.

한편, 삼일운동을 계기로 높아진 교육열로 각 지역에 공립사범학교들이 만들어질 때 대구에서도 1923년 경상북도공립사범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공립사범학교의 교육 질이 낮고,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후대 학무국장의 회고로는 극심한 자유주의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1929년 조선총독부는 공립사범학교들을 폐지하고 기존에 설립된 관립경성사범학교 외에 평양과 대구에 관립사범학교를 설치했다. 조선총독부가 통제하는 관공립사범학교들은 ‘교육칙어의 실현자’, ‘황국의도의 선구자’ 같은 교육방침을 통해 학생들을 모범적인 황국신민으로 양성하고자 했다.

◆ 주제어

교사교육, 사립대구사범학교, 경상북도공립사범학교, 관립대구사범학교, 황국신민 양성

## I. 들어가며

사범교육은 근대의 산물이다. 교사의 중요성이야 딱히 근대가 아니라 해도 이미 조선시대 학교 규칙들, 가령 「京外學校節目」(1546년)이나 「學校事目」(1582년)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율곡이 선조의 명을 받아 짓게 된 「학교사목」에서는 교육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사항은 가르치는 사람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가르치는 사람은 마땅히 실력과 인성을 갖추어야 하며, 심지어는 과직당한 이력이나 출신 여부를 불문하고 師表가 될 만한 자라면 정부가 조사하고 또 추천받아 교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sup>1)</sup> 이때 스승, 혹은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교육받은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배움을 통해 학문의 경지에 이름으로써 자신의 실력과 인품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존재였다.

1895년 고종이 ‘교육이 국가의 근본’이라 선언한 교육조서(‘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밀려드는 외세 앞에서 처음 만나는 서구적 지식을 가르칠 신식학교 설립과 그 신식학교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사범학교 설립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 국가는 한성사범학교를 만들어 사범교육을 시작했다. 사범학교에서 양성한 교사는 가르치는 전문가로 교육받은 제도적 존재이다. 그래서 사범교육을 마친 이들에게 국가가 교사 자격을 주고 무자격자와는 지위와 임금 등 여러 면에서 차별화했다. 국가의 차원에서 봤을 때, 사범교육의 설계는 초등학교생들에게 어떤 근대적 지식과 규범을 가르쳐 어떤 국민으로 양성할지 결정하는, 즉 국가의 국민관을 응축해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그러므로 사범교육 속에는 한 시대나 한 사회, 혹은 한 국가가 국민들이 알아 마땅하다고 표준화한 앎과 규범, 혹은 표준적인 국민을 어떻게 양성할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사범학교의 시작은 1895년이었지만, 사범교육이 일반에 널리 확장되는 시기는 러일전쟁과 을사늑약이 이뤄진 1905년 전후부터였

1) 『율곡선생전서』 제15권, 「학교모범」: 한국고전종합 DB 2024년 1월 20일 검색.

다. 을사늑약 후 통감부는 한성사범학교를 관립학교로 전환해 일본인 교사와 일본어 수업을 늘이면서 일제의 교육통치를 위한 기관으로 바꾸고 있었다. 대신 민간에서는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급격히 늘어난 신식 학교에서 가르칠 교사들이 필요했고, 사범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민간 활동이 활발히 펼쳐졌다. 그러다 본격적인 일제의 강점이 시작되면서 점차 민간 사범교육과정은 사라지고 공립사범학교를 거쳐 관립사범학교 형태로 체제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이 시기, 즉 1905년 무렵부터 시작해 일제강점기까지 사범교육이 어떤 교사를 양성하고자 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대구지역 사범교육의 전개과정을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대체로 통치자들이 한 국가의 수도와 지방을 구분해 관리하듯이, 일제강점기 역시 조선총독부는 경성과 지방을 이원화하여 관리했다. 경성에는 경성제국대학과 관공립전문학교들을 비롯하여 주요한 학교시설을 두어 식민지 엘리트 통치의 효율성을 꾀한 반면, 재정이나 정치적 필요성, 감독의 용이성, 지역민의 민도 따위를 이유로 지방의 학교 설치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거나 지역의 교육을 불량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범학교도 마찬가지여서 식민지 ‘사범학교의 총본산’이었던 경성사범학교<sup>2)</sup>는 학교체제나 재정이 지역의 사범학교들과 차원이 달랐고 학생도 일본인 위주로 선발하고 교육풍토도 다른 사범학교들보다 학생들에게 허용적이었다. 반면 지역 사범학교들은 재정상황과 통치자의 입김에 따라 쉽게 위기에 처해졌다. 이 점에서 사범교육의 식민지성이 더욱 잘 드러나는 것은 지역 사범교육이며, 지역 중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범교육의 다양한 모습과 지속성을 관찰할 수 있는 대구지역 사범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구지역 근대 사범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사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관립대구사범학교에 주로 집중해 왔다.<sup>3)</sup>

2) 박영규, 「植民地朝鮮における教員養成に關する研究」, 九州大學 博士論文, 2005, 86쪽.

3) 이기훈, 「식민지 경험과 박정희 시대 일제하 식민지 사범교육 - 대구사범학교를 중심으로

둘째, 사범교육이 양성하고자 한 교사상을 탐구하기 위해 사범교육이 운영되는 체제와 교육방침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범교육의 체제라 하면, 관공립사범학교들과 그 외에 지역의 다양한 사범교육을 포함한다. 또한 사범교육이 양성하고자 한 인물상을 탐구하기 위해 학교의 목적이나 사범학교 규정상의 교육방침<sup>4)</sup>을 분석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사범학교에 관한 선행연구자 박영규가 관공립사범학교를 황민화 기관으로만 보는 관점은 일제의 의도에만 주목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에 동의한다. 다만 대구지역 근대 사범교육 전 과정을 다루는 이 연구에서는 우선 사범교육 실시자들의 의도에 주목하므로, 교육주체들의 역동을 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 II. 문명화 시대, 민립 사범교육들의 명멸

20세기 초 애국계몽운동은 수많은 사립학교 설립으로 이어졌다.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학교가 나라 안에 가득하다’<sup>5)</sup>고 할 정도였고, 1910년 일제에 의해 인가받은 사립학교만 해도 2천여 개에 달했다. 그러니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과들을 가르칠 교원이 가장 다급했다. 박

- 
- ], 『역사문제연구』 9, 역사문제연구소, 2002, 41-76쪽; 허종, 「일제강점기 후반 대구사범학교의 학생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6, 181-212쪽; 복존행자, 「대구사범학교의 항일학생운동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09; 이경숙, 「전시체제기 대구사범학교 학생일기분석」, 『한국교육사학』 41(1), 한국교육사학회, 2019, 47-79쪽; 山下達也, 「植民地朝鮮の師範学校における「内地人」生徒：官立大邱師範学校を中心に」, 『歴史学研究』, 819, 2006, pp.23-31; 山下達也, 「日本統治期朝鮮師範学校研究序説—元日本人学生から見た大邱師範学校—一九三〇-三六年」, 『架橋』 5, 長崎大学教育学部政治学研究室, 2004, pp.1-113.
- 4) 「사범학교 시행규칙」(1906년) 또는 「사범학교 규정」에 따르면, 이를 “사범학교 교육의 요지(教育要旨)”(1906년), “생도 교양시 주의할 점”(1922년, 1938년), “생도 교육의 방침”(1943년)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전부 “교육방침”으로 표기한다.
- 5) 황현 지음, 허경진 옮김, 『매천야록』, 서해문집, 2016, 378쪽.

은식은 산술도 모르고 오대양을 구분할 줄도 모르는데 어찌 학교의 교사가 되겠냐며 탄식한 적 있다.<sup>6)</sup> 배운 사람이 자연스럽게 배울 사람을 가르치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기존의 학식으로는 새로운 세대를 가르칠 수 없는 시대에 돌입했다. 가르치는 일 전체가 의도적인 일련의 기획 작업이 되었다. 분리 불가능해 보이던 교수의 목적·내용·방법이 분리되어 체계적으로 다시 배치되며, 교육대상인 학습자를 심리학적으로 뜯아보는 과학적 대상이 된 것이다.

지금 “세계는 생존경쟁은 天演이요, 우승열패는 公例라” 말하는 때이므로 ‘크게는 국가, 작게는 가족과 일신을 보전하려면 청년의 교육을 권장하여 人才를 양성하고 백성들의 지식을 계발하는 것’이 “즉시 국권을 회복하고 인권을 신장하는 기”초이다.<sup>7)</sup> 이는 서우학회 설립취지서의 일부이지만, 세계가 생존경쟁과 우승열패의 시대라는 인식은 당대의 공공연한 담론이었다. 눈앞에 직면한 국가 위기 앞에서 정부이든 사회단체이든 이른바 문명화의 길은 우선 새로운 서구적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에 있다고 외쳤다. 그러자니 한성사범학교 교원을 지낸 박은식이 주장했듯이 ‘금일 교육에서 최고 급선무는 사범양성’이었다.

한말 정부 차원에서는 한양에 한성사범학교를 세우는 것으로 그쳤다. 통감부 아래서는 한성사범학교를 관립사범학교로 전환하고 일본인 교수와 일본어 수업을 늘이며 ‘완전’한 학교로 도약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민간의 교사 수요에는 무관심했다. 이에 민간에서는 지역별로, 단체별로 통감부로부터 자유로운 다양한 형태의 사범교육과정을 만들었다.<sup>8)</sup>

그중에는 첫째, 대성학교와 오산학교처럼 조선인 사립학교들이 운영하는 사범과, 속성사범과, 강습회 같은 것들이 있었다. 경신학교나 숭실학교, 계성학교처럼 종교계 사립학교 중 일부도 사범과를 운영했다. 가톨릭

6) 박은식, 「師範養成의 急務」, 『서우』 5, 서우학회, 1907, 2-3쪽.

7) 대한매일신보 1906년 10월 16일 「西友學會趣旨書」: 『大韓每日申報』 1906년 10월 16일 「西友學會趣旨書」: 『황성신문』 1906년 12월 1일 「西友學會趣旨書」.

8) 김영우, 『한국근대교원교육사 I』, 정민사, 1986, 119-160쪽; 김효정, 「한말 민립 사범학교의 설립과 교육구국운동」,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5.

력에서는 송신헌교<sup>9)</sup>를 사범학교로 설립하였다.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는 사범강습소를 열기도 했지만, 사범강습소를 다니진 않았어도 대성학교 졸업생들이 지역의 사립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는 점에서 대성학교 자체가 “사범학교격”<sup>10)</sup>이었던 것처럼 대체로 중등 정도 지역 사립학교들은 어느 정도 사범교육기관의 역할을 했다. 둘째, 국민교육회, 서우학회, 홍사단 같은 애국계몽운동단체들도 사범학교나 사범강습소 등을 운영했다. 국민교육회의 국민사범학교, 홍사단의 융희학교, 서북학회의 서북사범학교와 한북흥학회의 한북의숙, 그리고 서북학회와 한북흥학회의 통합 후 서북협성학교, 기호흥학회의 기호학교 사범과 등이 있었다. 셋째 지역의 관료와 지역유지들이 힘을 모아 세운 민관협력형 사범교육시설들도 있었다. 대구의 대구사범학교, 순흥군의 소흥학교 사범속성과, 강원도 양양군의 현산학교 사범과, 진주의 사립사범학교, 평양의 사범강습소, 함경도 안변군의 사범강습소, 황해도 재령군의 강습소, 황해도 배천군의 사범강습소, 평안남도 강서군의 문천사범학교 등이 있었다.<sup>11)</sup>

이처럼 다양한 사범교육과정이나 사범학교들은 설립자별로 별개로 존재했다기보다 관과 민, 또는 사회단체, 종교단체가 서로 호응하거나 협력하면서 상승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구사범학교가 경상북도 관찰사와 지역 계몽단체인 광문사(廣文社, 일명 ‘대구광문사’, ‘달성광문사’)의 협력 아래 설립되었듯이, 황해도와 평안도의 여러 사범교육과정도 기독교와 서북학회원들과 협력 속에서 발달할 수 있었다. 가령 기독교인이자

9) 최우철, 「1911~1913년 경성지역 천주교 사범교육 성격 연구 - 송신헌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43(1), 한국교육사학회, 2021, 197-219쪽.

10) 전영택, 「大成學校 학생시절의 추억」, 『기러기』, 홍사단본부, 1965.4.

11) 제국신문 1906년 4월 28일 「廣學社設立」, 1906년 5월 5일 「경남흥학」; 황성신문 1906년 9월 5일 「江倅熱心」, 1906년 10월 8일 「師校寄函」, 1907년 1월 10일, 1907년 6월 21일 「사범강습소 졸업식」, 1906년 7월 2일 「程度師範」, 1907년 7월 6일 「江校試驗成績」, 1906년 7월 10일 「慶校開式」, 1907년 11월 13일 「退倅興學」, 1907년 11월 20일 「光校興旺」, 1908년 6월 3일 「學員募集廣告 畿湖興學會」, 1908년 7월 31일 「강습소확장」, 1908년 8월 26일 「사범강습」, 1910년 6월 14일 「학원모집광고」, 1910년 6월 16일 「학원모집광고」;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9일 「백군슈 선정」, 1909년 6월 26일 「평양사범학교졸업」 등; 김효정, 앞의 논문.

서북학회와 신민회 회원이었던 최광옥은 황해도 안악지역과 연백지역에서 군수를 비롯한 지역민들과 함께 사범강습소를 개설해 활동했고,<sup>12)</sup> 평양의 사립사범학교도 평양군민회와 서우학회가 협동하여 개설했다. 이런 사범학교들의 목적을 서우사범학교 학도가는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학생들은 ‘국권회복과 동포구제가 학생들의 양 어깨에 달렸으니’ “忠君, 愛國, 血誠心を 잊지 마시오.”<sup>13)</sup>라고 노래했다. 그 외에 국민사범학교를 설립했던 국민교육회에서는 “국민의 智識發達키 위하여 사범학교를 우선 설립”한다고 밝히고 있다.<sup>14)</sup> 대부분의 사범과정 개설의 이유는 신식 학교 설립과 맥을 같이 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많은 사립학교가 일제로서는 여러모로 불편했다. 사립학교의 재정도 넉넉지 않고 교육내용도, 교사와 학생도 불온해 보였던 것처럼 사범학교나 사범교육과정들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총독부 초대 학무과장을 지낸 구마모토[隈本繁吉]의 문서 「학정의견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학력이 충분치 않고 성행 또한 대체로 불량한 데다가 신교육의 소양이 있는 자가 적고 어찌다 약간 신지식을 가진 자는 교수 관리의 방법을 모른다.”<sup>15)</sup> 그래서 조선에 교원양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사범학교 확장을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필요하므로, 식민지 조선에서는 사범교육을 위한 단기강습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다.<sup>16)</sup>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경비가 허락한다면 인물 확실하고 상식이 풍부한 일 본인 교원을 채용하는 것이 상책”이며, 특별히 학문적 깊이가 있는 사람은 불필요하고 일어보급을 도우면서 학과내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면 족하다고 주장했다. 달리 말해 사범교육의 목표가 일어능력 수준 낮은 지식 정도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 외는 불량하거나 때

12) 황성신문 1908년 7월 26일 강습소발달 ; 이명화, 「최광옥선생과 위대한 유산」, 『생활과학논집』 18,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04, 1-6쪽.

13) 김유탁, 「西友師範學校徒歌」, 『서우』 4, 서우학회, 1907.3, 38-40쪽.

14) 황성신문 1905년 11월 1일 「本會에서 國民의 智識發達키 爲하야」.

15) 「學政に關する意見書」, 1910, 59-60쪽.

16) 앞의 문서, 60-63쪽.



로 불온하거나 할 염려가 있으니, 단속대상이었다.

대구사범학교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사범교육기관들이 문을 닫았다. 지역 군수와 지역유지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범교육기관이 공립학교가 되지 못한 까닭은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 우선 재정문제는 늘 넘어야 할 숙제였다. “재력이 부족해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곳이 줄을 이었다.”<sup>17)</sup>고 할 만큼 대부분 학회나 교육기관들은 늘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렸다. 게다가 일제가 발표한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 「향교재산관리규정」, 「지방비법」 등 때문에 사립학교의 재원확보는 더욱 어려워졌다.<sup>18)</sup> 구한말 지역 행정조직 역시 학교를 감당할 여력과 의지가 없었다.

또 하나의 이유로 통감부의 사범학교 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906년 8월 공포한 사범학교령<sup>19)</sup>은 사범학교가 관립이나 공립(사범학교령 제2조)이어야만 하고, 사범학교령에 의거하지 않은 학교는 ‘사범학교’라 칭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제10조). 기존의 민립 사범학교는 더 이상 사범학교일 수가 없었다. 관립으로 전환된 한성사범학교만 유일하게 사범학교라는 명칭을 얻었다. 1906년을 전후하여 사범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교육기관이 있었고, 가톨릭 베네딕토회 선교사들이 경성에 설립한 사립사범학교인 숭신학교의 경우 1913년까지도 사범학교를 유지해 보려 했지만 정식 사범학교가 될 수 없었다.<sup>20)</sup> 강제병합 후에는 조선총독부가 사립학교에도 일본어 능력을 갖춘 교사와 일본인 교사 채용을 강제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교사임용에 개입하면서, 교사자격증을 줄 수 없는 민간 사범교육이 설 자리가 없었다. 식민지인들을 동화시키려면 무엇보다 교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사범교육은 재정이나 교육과정, 또는 운영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국가의 힘이 미약하거나 국가가 부재한 시대에 지역의 다양한 세력들이 기꺼이 모여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배우려는 자발적

17) 황현 지음, 앞의 책, 378쪽.

18) 김효정, 앞의 논문, 31-32쪽.

19) 관보 1906년 8월 31일 사범학교령.

20) 최우철, 앞의 논문.

학습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학교를 세워 문명과 열망을 실현해 국권회복과 부국강병의 꿈에 닿고자 했다. 사범교육을 실시하는 대개의 목적도 학교 너머의 사회문화 변화를 도모하는 데 있었다. 사범교육을 받은 이들이 문명화의 전령이 되어 사람들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삶과 규범을 갖춘 인간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가능성의 인간관과 교육관을 내장하고 있었던 셈이다.

### Ⅲ. 대구지역 민립 사범교육의 희망

#### 1. 사립대구사범학교, 그 짧은 문명화 소명

대구사범학교 설립과 운영 역시도 관과 民이 합작하여 근대교육을 확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대구에서는 민간에서 흥화학교나 달성학교 등을 관과 협력해 세운 적 있고, 1906년 1월에 지역유지들이 세운 계몽단체인 광문사도 있었다. 광문사는 경북 전역에 신식학교를 세우고 교과서를 발행한 계몽조직으로, 광문사 내 文會 회원들만 500명에 달했다.<sup>21)</sup> 이런 상황 속에서 1906년 2월에 새로 부임한 경상북도 관찰사 신태휴<sup>22)</sup>가 광문사 사장 김광제를 비롯한 지역유지들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흥학운동을 추진했다.<sup>23)</sup> 관찰사 신태휴는 ‘백성에게 교육이 없으면 금수와 다르지 않고 국가가 교육하지 않으면 장차 야만의 풍속을 면

21) 김형목, 「대구광문사의 문화계몽운동과 김광제 위상」, 『중앙사론』 44,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6, 55-87쪽.

22) 관보 1906년 2월 22일 : 대한매일신보 1906년 1월 20일 「申氏觀察」, 1906년 1월 30일 「宮廷錄事」: 1906년 1월 18일 육군법원장에서 경상북도 관찰사로 임명되어 2월 9일 임지했다.

23) 대한매일신보 1906년 3월 22일 「嶺學大張」, 1906년 4월 22일 「慶學大興」, 1906년 5월 29일 「達察獎學」, 1906년 7월 19일 「演說動人」; 황성신문 1906년 3월 26일 「對慶北觀察申泰休氏興學訓令警告全省」, 1906년 3월 27일 「對申觀察興學訓令警告實行」, 1906년 4월 23일 「慶北校況」; 김광제, 『演說大海』, 光東書觀, 1909.

치 못한다’며 1906년 3월에 「興學訓令」을 발표하였다. 흥학훈령은 각 군에 기본적으로 100호마다 학교 하나를 설립하고 가구당 의무적으로 학교경비를 납부하고 서당은 폐지하도록 했다. 활발한 흥학운동 덕분에 6월 초 경상북도 내 학교가 370여 개, 학생이 4천5백 명, 대구부 내 학교가 70개, 학생이 천여 명에 달했다.<sup>24)</sup>

당연히 흥학운동은 초등학교 설립과 더불어 사범학교 설립계획을 담고 있었다. 사범학교는 ‘사방의 뛰어난 인재들을 다수 선발하여 그 연령과 조예에 따라 가르침을 주어 성취하도록’ 기획했다.<sup>25)</sup> 사범학교 설립을 위해 1906년 3월부터 경북지역에서는 현 군수들, 진 군수들, 전 관찰사들, 오위장 등을 비롯한 전현직 관료들과 광문사 회원들과 지역유지, 지역민들이 참가해 학교 설립과 유지를 위한 기금을 마련했다.<sup>26)</sup> 마침 과거시험을 치던 관덕당(관덕정)<sup>27)</sup>이 과거시험 폐지 이후 허물어져 가던 지라 이 건물을 의연금으로 수리하고 학교 유지비는 발기인들이 내는 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사립사범학교 설립을 학부에 알리고 학교가 시작되었다.<sup>28)</sup> ‘私立’학교라고 하나, 지역민들과 더불어 전현직 관료들이 대거 의연금을 보태고 학교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民立’이라고 부르는 게 공공적 성격을 드러내기에 좀 더 적합한 학교였다.

개교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대구사범학교를 다녔다는 대한제국 관료 배헌의 이력<sup>29)</sup>에 따르면 4월 16일 개학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팔십에서 백 명가량으로 성황 중이었고 가르친 과목은

24) 황성신문 1906년 3월 19일-23일 「興學訓令」, 1906년 6월 2일 「達察治績」; 제국신문 1906년 6월 2일 「慶北興學」; 대한매일신보 1906년 6월 3일 「嶺校擴張」.

25) 황성신문 1906년 6월 2일 「達察治績」.

26) 대한매일신보 1906년 3월 11일 「達察美績」; 황성신문 1906년 3월 29, 30, 31일 「대구부사립대구사범학교」; 김효정, 앞의 논문, 19쪽.

27) 현재는 관덕정이라 더 많이 불리지만, 당시 언론에는 관덕당이라 표기하고 있어 관덕당이라 한다.

28) 제국신문 1906년 3월 13일 「損財偏學」.

29) 배헌(裴瀾)의 이력에는 “1906년 4월 19일 入學私立大邱師範學校, 同年九月三日學校廢止”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 『대한제국관원이력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2024년 1월 20일 검색.

일어, 작문, 산술, 지리, 역사, 물리화학 등<sup>30)</sup>이었다. 대구사범학교 교장은 徐相夏, 學監은 金容璇이 맡았다. 서상하는 참관을 지냈던 인물로 사립대구사범학교장을 맡은 이후로도 사립협성학교장을 지냈고, 교아학교, 협성학교, 측량강습소, 수창학교 등 여러 학교에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했으며, 교육분야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두루 칭송이 자자했던 인물이었다.<sup>31)</sup> 김용선 역시 달성친목회를 조직하고 교육활동에 열심이었던 인물로 1911년에는 사립명신여학교 학감을 지냈다.<sup>32)</sup> 대구사범학교에 대한 더 상세한 운영상황을 현재로선 자료의 한계로 파악이 어렵다.

다만 갑작스런 폐교에 대한 언론 기사는 190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여러 번 보도되었다.<sup>33)</sup> 흥학운동에 열심이었던 신태휴가 고작 5개월 남짓만인 1906년 6월 29일 평안북도 관찰사로 떠나고<sup>34)</sup> 그해 가을에 사범학교 학생들이 관덕당에서 쫓겨나면서 “문명발달”의 꿈은 깨졌다. 발단은 군부가 대구진위대에 관덕당을 다시 접수하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줄지에 쫓겨난 것이었다.

사범학교 “늑탈점령”<sup>35)</sup>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이 컸다. 발기인 서상하, 서상돈을 비롯하여 여러 명이 서울에 올라가 항의하고, 학부와 군부 사이에 교섭도 있었으나 군부는 병사 훈련이 긴급하다며 관덕당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06년 11월 이후로는 대구사범학교 소

30) 제국신문 1906년 10월 30일 「妨害教育」.

31) 황성신문 1906년 6월 26일 「徐氏義助」; 1908년 7월 19일 「對徐相夏氏學校贊成 幷 仍勉嶠南全道人士」, 1908년 10월 8일 「此何魔戲」, 1910년 4월 3일 「徐氏熱誠」; 대한매일신보 1906년 9월 7일 「徐恩조頌」, 1908.10.27. 「徐氏測量勸獎」, 1910년 4월 3일 「칭송할만한 일」; 매일신보 1915년 1월 30일 「거룩한 대구부자」.

32) 대한매일신보 1906년 6월 19일 「贊成校務」; 매일신보 1911년 12월 15일 「명신여교의 내홍」; 국사편찬위원회, 「徐昌圭 신문조서」,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8권 國權恢復團 II』, 1994.

33) 제국신문 1906년 10월 16일 「校舍持貳」, 1906년 10월 20일 「鎭隊沮學」, 1906년 10월 30일 「妨害教育」, 1906년 11월 6일 「學軍交涉」, 1906년 11월 19일 「請還校舍」.

34) 관보 1906년 7월 4일.

35) 제국신문 1906년 10월 30일 「妨害教育」.

식을 찾기 어렵다. 폐교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배헌의 이력서에는 1906년 9월 30일 사범학교가 폐지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보아 학교가 9월 30일 폐지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지역민들의 향의가 줄이었으나 결국 학교를 살리지는 못했다고 추정된다.

대구사범학교로 사용되던 관덕당을 대구진위대가 접수했다고 하나 이는 군부의 명령 때문이었고<sup>36)</sup>, 또 지역민들이 학교 유지를 위해 향의하러 ‘상경’했다는 소식도 또한 이 일이 대구진위대의 자율적 결정이 아님을 방증한다. 군부가 명령을 내릴 무렵에 군부대신은 대표적인 친일적 인사 이근택이었고, 대구진위대는 을사늑약 이후 경북지역에서 의병운동이 활발해지자 의병진압에 참가하고 있었다. 군부의 상황이 이러한 때 대구사범학교가 관덕당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더욱이 1907년 일제에 의해 한국군이 해산당하면서 관덕당은 일본 부대가 점령하게 되었다.<sup>37)</sup>

대구사범학교가 폐교되고, 대구지역에 공식적인 민간 사범학교는 사라졌다. 그리고 신태휴 관찰사가 있을 때 급팽창하던 사립학교들도 위기에 처했다. 증가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이 부정적이었고, 조선인들 사이에도 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고,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도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사범교육을 위한 노력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대구지역 사립학교인 협성학교에서 1910년 여름에 교사양성을 위한 속성사범과를 개설했었다. 향교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된 사립협성학교는 1907년 말 큰 화재가 나 어려워지자 1908년 다시 재개하였을 때 서상하가 교장을 맡았던 학교였다.<sup>38)</sup> 이 학교에서 1910년 7월에 속성사범과를 개설해 20명에게 졸업증서를 주었다.<sup>39)</sup> 이후로 본격적인 일

36) 제국신문 1906년 10월 16 「校舍持貳」, 1906년 10월 20일 「鎭隊沮學」, 1906년 10월 30일 「妨害教育」.

37)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25일 「校廢日占」.

38) 황성신문 1908년 7월 19일 「大邱郡東中面砧山洞 對徐相夏氏學校贊成啓야 仍勉嶠南全道人士」;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30일 「協校輪函」; 이인숙, 「근대기 대구의 서화 후원자 이종면, 이근상 부자의 ‘오정 소장 컬렉션’ 연구」, 『영남학』 3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6, 193쪽; 속성사범과가 개설된 1910년도에 협성학교 교장이 누군지는 파악하지 못했고, 1911년에는 이종면이 교장이었다.

제강점기 아래서 지역민들이 스스로 문명화의 전령을 양성하고자 했던 사범교육은 사라졌다.

## 2. 기독교의 사범교육, 일상 속 미국식 표준

기독교 선교회는 학교와 병원을 매개로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펼쳤고, 특히 기독교 학교는 서구 지식을 직접 접하는 문화적 장치로서 파급력이 컸다. 전국에 기독교 사립 초·중등학교들을 확대해 갈 때, 개신교는 비교적 일찍부터 사범교육에 대해 고민 중이었다. 개신교에서는 개별 지역 단위나 학교 단위를 넘어 개신교 전체 차원에서 사범교육을 고민했다. 1897년 6월부터 기독교인 교사양성을 위한 사범교육을 시작했고, 그해 8월 장로교 선교부 연례회의에서 「우리의 교육정책」을 채택해 ‘특별 단기사범과’ 설치를 결의했다.<sup>39)</sup> 기독교 차원의 사범교육이 지닌 큰 특징은 교회가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들어 기독교인들의 가치관과 일상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던 것처럼, 주일학교, 성경학교, 미션스쿨 등을 매개로 아동을 어떻게 대하고 가르칠까 하는 사범교육 논의 역시 새로운 서양식 아동관과 교수법을 일상생활에 전파하는 통로였다는 점이다.<sup>41)</sup>

39) 대한민국보 1910년 7월 23일 「교육계 : 速成師範卒業」; 황성신문 1910년 6월 16일 「南來喜信」, 1910년 8월 13일 「大邱講習會盛」: 손병철(대구 협성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고찰, 대구경북연구 20(1), 106쪽)은 “1910년 대구 협성학교에서 여름 방학 동안 역사와 과학을 지역교원들에게 강습하였는데 참석인원이 200여 명이였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황성신문(1910.6.16.)에는 이 관련 내용이 없다. 그리고 ‘2백여 명이 참가한 여름 강습회’ 기사는 황성신문 다른 기사(1910년 8월 13일)에 실려 있지만, 이 기사에는 “지역교원”이 대상이라 명시하지 않고 강습회라고 적시하고 있다.

40) 황성신문 1908년 2월 29일 「敎會의 學校」;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4일; 「1911 Annual Report Presbyterian」, p.44; 이성전(글), 서정민, 가미야마 미나코 옮김, 『미국선교사와 한국근대교육』,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66쪽.

41) W.M. Baird,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리포트 1』 95,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6, 139-140, 165, 174쪽; W.M. Baird, “Teaching Teachers”, Korean Mission field, 2(11), 1906. Sept., pp.205-206; Katherine Wambold, “Women’s Sunday school therachers’ class”, Korean Mission field 9(12), 1913.12. pp.48-49

북장로교가 중심이었던 대구경북지역의 기독교에서도 선교사들과 각종 종교활동을 통해 사범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있었다. 대구지역 서양인 선교사들이 지닌 아동관과 교육관의 일부를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선교사 어드만(W.C.Erdman, 어도만)의 보고 내용이다. 그는 조선인 학생들은 “동양식”으로 암송 공부를 하고, 교사 중에는 체벌을 “슬로몬의 지혜”처럼 여겨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회초리질을 하는 이도 있다면서 한국의 교육방식이 체계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선인들은 프뢰벨도 모르니 그렇다고 한마디 보탤다. 프린스턴대학과 프린스턴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경학교 교장을 맡았던 어드만 선교사에게는 프뢰벨의 관점이 익숙하고 아동에게 체벌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sup>42)</sup>

이런 관점은 어드만 선교사만의 생각이 아니다. 신명여학교에서 두 번 임시교장을 지냈던 버그만(G.O.Bergman, 박우만) 선교사도 프뢰벨 사상에 심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녀는 여자성경학교 교장도 지냈고, 주일학교 감독을 맡기도 했다. 여자 선교사들이 지도하는 여자 성경학교는 이른바 ‘교사 양성소’라 불렸다. 신명여학교 임시교장이었던 1927년에는 학교 내에 보육과를 부설하여 교육했는데 이때 교육학 교재로 프뢰벨의 『사랑의 교육』, 『어머니의 유희』 등을 가르치고 프뢰벨의 은물로 수업을 진행했다. 버그만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는 수치 중 하나는 1917년 경상북도 비기독교인 대상 주일학교 대집회 참석인원이다. 그 해 주일학교를 버그만 선교사가 감독했는데, 주일학교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여는 집회에 참석자가 약 천 명에 이르기도 했다. 1927년 여름에 경주 안강에서 열린 주일학교 사범강습회 참가인원도 200여 명이였다.<sup>43)</sup>

---

: J.G. Holdcroft, “Pressing Phases of Sunday School Work”, Korean Mission Field 12(9), 1916.9.; 윤정란, 「근대전환기 서구 기독교윤리 교육을 위한 주일학교의 아동중심교육학 도입」, 『기독교사회윤리』 47,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20, 63-100쪽.; 이윤진, 「1910년대 개신교 주일학교의 교육활동」, 『한국교육사학』 30(2), 한국교육사학회, 2008, 101-118쪽.; 조정봉, 「일제하 “하기 아동성경학교”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교육철학』 23, 한국교육철학회, 2003, 215-236쪽.

42) 어드만, 「1907년 2월 2일 대구에서 쓴 보고서」, 『100년 은혜, 세상과 나누리』 2, 기독교문사, 2014.

물론 서양 선교사들이 말하듯이, 체벌이나 암기식 학습이 동양만의 전통일 리 없음에도 선교사들은 이런 인식을 갖고 동양의 교육을 폄하했다. 이 배경에는 계성학교 교장 라이너(R.O.Reiner, 나도래)가 ‘조선의 교육을 위해서는 당신의 방문이 꼭 필요하다.’고 편지를 보낼 정도로 조선의 선교 교육에는 물론 전 세계 선교 교육에 영향을 미쳤던 미국 종교교육자 세일러(T.H.P.Sailer)가 있었다. 그는 북장로교 인사로 세계선교활동에 관여했고 조선도 방문했었다. 세일러의 인식은 전 세계 미국 선교사들 사이에 공명을 일으켰고,<sup>44)</sup> 대구 선교사들의 보고에도 같은 인식이 담겨 있었다.

선교사들은 과학적 접근법으로서 사범교육에 관심이 있었다. 계성학교 교장 아담스(J.E.Adams, 안의와)는 조선선교연합교육부 의장으로 있을 때 공동 논의내용으로 “테크니컬 하거나 페다고지컬 한 관점에서 볼 때, 즉 교수의 과학(the science of teaching)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교육을 더욱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sup>45)</sup> 이런 아담스의 고민은 계성학교 내에서 이미 1911년 6월부터 사범과(Teachers' Normal class)를 부설하려는 계획으로 나타났다. 아담스에 이어 교장이 된 라이너는 아담스의 계획을 이어 학교 내 사범과를 운영했다. 라이너는 조선으로 입국하기 전에 미국에서 교사 경험이 있었고, 자신이 교육 선교사라는 사실에 자부심이 높았으며, 1931년에는 안식년 때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던 인물이었다.

43) 「1917 Report of The Chosen (Korea) Mission of Pres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To the Annual Meeting held at Pyengyang, Chosen, June, 1917, p.42 ; 동아일보 1927년 7월 28일 「영남지방 주일학교사범강습회」 ; 신명오십년사편집위원회, 『신명오십년사』, 1957, 105-106쪽 ; 클라라 헤드버그 브루엔 수집 및 정리, 『100년 은혜, 세상과 나누리』 3, 기독교문사, 2014, 52-53쪽.

44) J. Zimmerman, *Innocents Abroad*,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p.26.

45) J.E. Adams, 「Digest of Answers received from members of the educational commission, Seoul Conference - Education, Literature」, 1913년(?), p.4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소장.



계성학교 사범과는 경상북도 기독교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마다 1개월씩 총 7년, 즉 7개월 과정으로 처음에 설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4년 과정으로 진행된 듯하다. 1911년과 1912년에 각각 서른 명 내외가 사범과에 등록했고 1914년에는 경상북도에서 개최하는 교원강습회와 연계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1914년 여름에 6명이 제1회 졸업을 했다. 그러나 이 사범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sup>46)</sup> 1915년에는 인원 부족으로 개설하지 못했고, 1916년 다시 개설하였으나 1917년부터는 사범과 운영의 흔적이 없다. 정확히 어떤 과목을 개설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담스의 페даго지에 대한 관심, 계성학교에서도 교육학을 가르쳤던 라이너<sup>47)</sup>가 숭실전문학교로 이전 한 후 교육학을 가르칠 때 당시 미국에서 막 발간된 행동주의자 손다이크·게이츠의 공저를 번역해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점, 그리고 계성학교와 같은 복장로교 학교인 경신학교에서 가르친 교육학 과목들<sup>48)</sup>을 비춰볼 때, 교과목 지식과 함께 미국 교육학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을 것이다.

계성학교 사범과는 없어졌지만, 대구지역 선교회는 주일학교나 성경학교를 계속 운영했고, 1920년대 계성학교 교장인 헨더슨(H.H.Henderson, 현거선) 역시 존 듀이의 영향이 컸던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취득한 선교사였다. 선교사들과 그들에게 교육받은 기독교인들이 지닌 교육학적 관심이 종교를 통해 지역과 가정, 즉 일상 속에 넓게 퍼져 당시의 아동관과 교육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15년 사립학교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후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었을뿐더러, 사립학교에서조차 학력 인정을 위해서는 교사자격이 중요해지면서 민간의 사범교육 수요는 현저히 줄었다. 더구나 193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전쟁체제 속에서 사립 기독교 학교들도 일제의 단속대상이 되었고, 전국 기독교 사립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숭실전문학교의 사

46) 계성학교, 「계성학보」 1, 1913년, 15쪽 ; 계성학교, 「계성학보」 2, 1914, 37-38쪽 ; 계성오십년사편찬위원회, 『계성오십년사』, 1956, 51-52쪽.

47) 계성학교, 같은 책, 1914, 교원의 분담과목일람.

48) 황성신문 1909년 9월 4일 「학원모집광고」, 1910년 8월 25일 「학원모집광고」.

범교육 실시도 “강사 등이 붙은”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었다.<sup>49)</sup> 이 무렵부터 신사참배 문제가 불거지면서 종교세력도 전쟁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이후 선교사들도 적국의 국민으로 처리돼 귀국해야 했다.

#### IV. 관공립사범학교로 귀속과 모범적 황국신민 양성 기획

인류사에서 교사양성을 위한 사범학교(normal school)가 공립학교로 설립된 사례는 프랑스, 프로이센, 미국, 일본 등에서 일반적이었다. 공립학교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공공의 가치에 맞는 보편적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 미국에서 주립사범학교가 만들어지는 배경이나 일본의 사범학교가 공립학교로 전환된 이유도 그랬다. 일찍이 조선에서도 張膺震은 국민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해 사범학교를 관립으로 운영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sup>50)</sup>

문제는 공립사범학교가 어떤 인물을 양성하려고 하느냐이다. 일제강점기 내내 기독교 학교들의 교사와 교장을 역임했던 라이너가 식민지 조선의 교육이 자율성과 민주성 없이 국가를 위한 기능적 인물을 키우려고 했고 그래서 조선인들이 반발했다고 비판했듯이,<sup>51)</sup> 사범교육 역시 그러했다. 사토 마나부[佐藤學]의 주장<sup>52)</sup>처럼 제국 본국 내부에서보다도 식민권력은 식민지 이민족에게 더 가혹하게 국가주의(nationalism)적, 천황중심적 제국주의 신념을 밀어붙였다. 이는 ‘내선일체’라고 하지만 식민지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고등사범

49) 조선일보 1935년 12월 13일 「당국의 간섭으로 수양회를 중지」; 동아일보 1935년 12월 15일 「초등교원수양회 부득이 중지」.

50) 장응진, 「我國國民教育의 振興策」, 『태극학보』 3, 태극학회, 1906.10.24., 7-14쪽.

51) R.O. Reiner, Th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Modern Public Education in Kore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31, pp.217-220.

52) 佐藤広美, 『植民地支配と教育学』, 皓星社, 2018, 244쪽.

학교는 일본에만 두고, 조선에는 일제의 의도에 충실한 기능인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만 둔 데서 사범교육의 식민지성은 충분히 드러난다. 그리고 사범학교의 교육방침을 살펴보면, 일본 내의 사범학교 규칙에서 밝히는 교육방침보다 조선의 사범학교 교육방침에 천황중심적 제국주의 경향이 훨씬 두드러진다.

## 1. 경상북도공립사범학교 설치와 폐지

조선총독부는 1911년 1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조선에서 유일한 관립 사범학교마저 폐지했다. 당시 일본 내부의 논의와 조선의 언론을 보면<sup>53)</sup> 사범학교 설립계획이 아예 없진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사범학교 설립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유는 “교육상 그리고 경제상 편리”<sup>54)</sup> 때문이었다. 대신 경성고등보통학교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평양고등보통학교에 사범과 혹은 사범속성과를 설치했다. 1916년에 개교한 대구고등보통학교는 사범과를 운영하지 않았다. 그 사이 단기강습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범교육을 대신했다.

변화가 생긴 때는 삼일운동 이후였다. 삼일운동 후 쏟아지는 교육요구에 조선총독부도 한발 물러서 학교제도를 변경하면서 사범교육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우선 1921년 서울에는 조선총독부사범학교를 설치하고, 기설의 경성과 평양 고등보통학교 이외에도 대구와 함흥의 고등보통학교에도 사범과를 설치하고 그 외에 임시교원양성소를 뒀다. 대구고등보통학교에 설치된 사범과는 설치된 1921년부터 폐지된 1924년까지 졸업생이 전체 63명에 불과했다.<sup>55)</sup>

53) 박영규, 앞의 논문, 42-45쪽; 황성신문 1910년 9월 4일 「조선교육방침」; 신한민보 1911년 1월 11일 「사범학교설립계획」.

54) 안홍선,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14쪽; 김태웅, 「일제하 관립전문학교의 운영 기조와 위상 변화」, 『연희전문학교의 학문과 동아시아 대학』, 혜안, 2016, 228쪽.

55) 박영규, 앞의 논문, 51-52쪽.

그리고 1922년 관립경성사범학교 이외에 공립사범학교를 각 도에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학교설립에 착수했다.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시바다[柴田善三郎]는 기존의 사범과나 임시교원양성소가 “불완전한” 양성 방식이었으므로 장차 도립사범학교를 통해 “일층 완전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sup>56)</sup> 공립사범학교들의 증설을 두고, 조선총독부 시학관 다카하시[高橋濱吉]는 “조선교육의 幸”이라고 평가했다.<sup>57)</sup>

대구에서도 1922년 3월에 경상북도의회에서 사범학교 설립이 논의됐고, 그해 7월에는 일본인을 포함하여 대구부민대표 4명이 조선총독을 만나 사범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sup>58)</sup> 1923년 12개 도에 설립된 공립사범학교들 가운데 하나가 경상북도공립사범학교(이하 ‘경북사범학교’)였다. 공립사범학교는 각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학교인 만큼 지역마다 학과 구성이나 지원자격, 모집인원, 설비 등에서 차이가 났다.<sup>59)</sup> 경북사범학교에는 2-3년 과정의 특과와 1년 과정의 강습과를 두고, 남학생만 아니라 강습과에는 여학생도 모집했다. 여학생들의 수료율도 남학생만큼이나 높았지만, 1925년부터는 여학생 모집을 중단했다가 1928년에 재개했다.<sup>60)</sup> 관립학교로 승격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재정상 불가능했다.<sup>61)</sup> 다른 지역 공립사범학교가 그랬듯이, 경북사범학교도 늘 입학경쟁률이 높았다.

공립사범학교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자유독립의 이상이 드높았던 때 출현했으므로, 사범학교의 학생 교육에서도 ‘다이쇼 민주주의’, ‘다이쇼 자유교육운동’의 영향이 확인된다. 1922년에 제정된 사범학

56) 동아일보 1922년 2월 24일 「사범학교 규정(속) 柴田학무국장 談」.

57) 박영규, 앞의 논문, 86쪽.

58) 매일신보 1922년 3월 17일 「경북도평의회 제2일」, 1922년 7월 19일 「대구위원진정」.

59) 「大正13年2月 公立師範學校長會議諮問並聽取事項答申書」, 1924.2.

60) 매일신보 1923년 3월 5일 「입학안내 대구사범학교」, 1928년 1월 27일 「경북중등교 입학시험(1) 도립사범학교」; 조선일보 1924년 2월 1일 「사범학교학생모집」, 1924년 4월 5일 「사범교에 합격자」, 1925년 3월 15일 「사범과졸업생」.

61) 경성일보 1925년 9월 20일 「慶北道立師範昇格は未」.

교 규정의 교육방침을 보면, 1906년 사범학교 교육방침(‘教育要旨’)에 없던 내용들, 가령 ‘학생들의 처지와 특성’을 고려하고, ‘교과 간 연합’을 모색하라는 사항을 포함시켰다. 물론 1906년 교육방침보다 국가주의적 관점은 더욱 강조했다. ‘정신단련, 덕행연마’, ‘尊君愛國’, ‘규율준수, 질서유지’ 같은 추상적인 요소들(1906년)은 없애고 대신에 구체적으로 일본의 국민으로서 “국민도덕”, “국민지조”, “국어숙달”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순량’, ‘정숙’, ‘근검’과 같은 덕성의 함양을 요구했다.<sup>62)</sup>

1920년대 후반 경북사범학교는 페스탈로치를 이상적인 교사상으로 여겼던 것 같다. 1927년에 경북사범학교가 페스탈로치 서거 백주년을 맞아 ‘페스탈로치 백년제’ 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다.<sup>63)</sup> 그렇다면 대구사범학교에서는 페스탈로치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사범교육의 총본산’ 경성사범학교에서도 페스탈로치를 기념하는 강연회를 개최하고, 그를 모범적 교사로 알리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페스탈로치 전문가 역할을 하던 경성사범학교 교사 이치무라[市村秀志]는 페스탈로치를 동원해 천황중심적 국가관을 정당화하고 있었다.<sup>64)</sup> 그리고 백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던 일본에서도 페스탈로치는 헌신적인 ‘교육자 정신’의 상징적 인물이었다.<sup>65)</sup> 이처럼 페스탈로치가 경성사범학교나 일본에서 개혁가로서 헌신적인 교사이자 국가주의적 교사로 수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사범학교에서 기리는 페스탈로치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교육의 幸”이라던 공립사범학교 설립에 대해 1934년에 학무국장 와타나베[渡邊豊日子]는 이렇게 회고한다.

62) 관보 1906년 9월 1일 사범학교 시행규칙; 관보 1922년 2월 23일 사범학교 규정.

63) 경성일보 1927년 1월 27일 「教育の始祖ベ翁の百年祭、記念講演や教育者を表彰、大邱師範學校で」; 조선신문 1927년 1월 27일 「ペスロタッチ百年祭を催す大邱道立師範」: 당시 교장은 1926년 9월에 새로 부임한 土井喜一였다.

64) 안홍선,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4, 63-68쪽.

65) 寺岡聖豪, 「1920年代日本におけるペスタロッチの影響」, 『福岡教育大学紀要』 55(4), 2006, 79-94쪽.

사이토 총독 시대, 즉 1922년에 舊교육령과 비교해 대담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알고 계시듯이 세계전쟁 후였고, 자유사상이 극도로 왕성한 시대였습니다. 세계를 휩쓴 자유주의는 조선 반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의 당국자 입장에서는, 역시 그 당시의 시세에 비추어, 이와 같은 대개혁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어서 단행되었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sup>66)</sup>

어쩔 수 없었던 개혁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는지, 공립사범학교를 설립한 지 두 해만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더니 결국 1928년 6월 28일 「임시교육심의위원회」에서 ‘사범학교 특과 폐지’와 ‘사범학교는 관립으로 할 것’을 결의하고 공립사범학교 폐지를 결정했다.<sup>67)</sup> 사범학교의 특과 졸업생들 “소질이 일본에 비하여 비상이 저열”하고 道 지방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공립사범학교들을 폐지한다는 소식이 1925년 제국의회에 제출한 조선총독부 설명자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 이후 언론들에 계속해서 등장했다.<sup>68)</sup> 지방비 부족 이외에 주요하게 제기된 폐지 이유는 입학자격자 부족과 공립사범학교 출신들의 일본어 능력과 교원으로서 능력 부족이었다. 실제 공립사범학교 입학자들의 학력은 보통학교 졸업이 다수였고<sup>69)</sup>, 공립사범학교 특과는 2년 혹은 3년 과정으로 관립경성사범학교(보통과 5년, 연습과 1년)에 비해 교육기간이 현저히 짧았기 때

---

66) 渡邊豊日子, 「朝鮮教育の側面觀」, 1934. :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 편찬위원회 기획, 강명숙 등 편역, 『교육정책(2)-일제강점기 교육 논설』, 2021, 353쪽에서 재인용.

67) 繼雄稻葉, 「植民地朝鮮の道立師範學校」, 『大学院教育研究紀要』 13, 2011, 46쪽 ; 관보 1931년 4월 21일 : 1929년 공립사범학교 폐지를 결정하고 11개 공립사범학교(경북, 평남은 제외) 폐지는 1931년 3월 31일자로 이뤄졌다.

68) 시대일보 1926년 5월 28일 「師範教育現狀」 ; 중외일보 1927년 8월 20일 「師範校의 合同計劃」 ; 동아일보 1927년 8월 20일 「전조선공립사범학교합동 특별사범의 내용을 충실코저」, 1929년 1월 18일 「道 師範의 폐지에 대하여」 ; 조선일보 1928년 9월 22일 「道立特師는 폐지하고 종합사범설립?」.

69) 박영규, 앞의 논문, 108쪽; 1923년 경북사범 특과 입학생의 경우 「(公立師範學校長會議)諮問竝聽取事項答申書」(大正13年2月, 74쪽)에 따르면, 입학생 50명 중 4년제 보통학교 졸업자는 6명, 나머지는 다 그 이상의 학력소지자였다.

문에 교원 능력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의 지적처럼 배출된 교원의 질도 낮다고 하면, 사범교육의 질을 높이면 될 일을 학교를 폐교하는 행정은 식민지인들의 교육기회를 빼앗은 차별행위에 불과했다.

박영규가 지적했듯이, 공립사범학교 폐지의 실질적인 이유는 각 도의 열악한 재정기반이 더 컸다.<sup>70)</sup> 짧은 사범학교 교육과정도 결국은 도 지방비 부족 문제였고, 경북사범학교가 1925년에 조선 남부 6개 도 학무회의에서 관립학교 승격 건을 승인받고서도 승격하지 못한 까닭도 총독부의 재정 부족 때문이었다.<sup>71)</sup>

지역민들의 교육적 편의나 지역발전을 위해 “수백만 각 도민의 열렬한 반대”도 있거니와, 장차 초등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사범학교는 오히려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지역의 공립사범학교들을 폐지했다.<sup>72)</sup> 공립사범학교 폐지 이후, 대부분 지역들은 1910년대에 공인된 사범학교가 없던 시절로 되돌아갔다. ‘공립’이라고 했으나 식민권력 앞에서 지역의 공립사범학교들은 그만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 2. 관립대구사범학교의 신설과 교육방침

1929년 1월 후쿠시[福士末之助] 학무과장은 사범교육은 중대해서 여러 곳에 분설하면 “교육에 통일을 얻을 수 없(다)”며 관립사범학교 설치를 공포했다.<sup>73)</sup> 사범학교는 지방의 “국부적인 문제”보다 중요하므로 조선총독부가 직접 “통일”성 있게 취급해야 한다고 봤다. 왜 조선총독부가 사범학교를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1934년 와타나베 학무국

70) 박영규, 앞의 논문, 109쪽.

71) 경성일보 1925년 9월 20일 「慶北道立師範昇格は未し」.

72) 조선일보 1929년 3월 27일 「도민의사를 무시 도립사범을 철폐」; 동아일보 1929년 1월 18일 「道 師範의 폐지에 대하여」.

73) 동아일보 1929년 1월 10일 「지방사범학교폐지 중요처만 4교 설치」.

장의 발언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1929년에 이르러 야마나시 총독의 시대가 되어 여러 사상 방면의 문제가 점차 떠들썩해지고, 또 한편에서는 경제상의 문제도 상당히 귀찮아져, 사상 방면의 시설로서는 아무래도 근본적인 방책으로 초등학교에 무계를 둘 필요가 있어, 그것을 위해서는 사범교육을 어느 정도 완전한 것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새로 부속한 동포에 대한 교육의 경우에 사범교육은 지극히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sup>74)</sup>

1920년대에 식민지 조선에도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고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잦았다. “특히 새로 부속한 동포” 즉 식민지인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사범교육을 일사분란하게 통제할 필요를 느꼈다. 1920년대 초반부터 관립학교였던 경성사범학교 이외에 관립사범학교를 어느 지역에 둘지가 논란거리였다. 1928년 9월까지도 설치 지역이 여전히 미궁이었다가 1929년 2월에 대구로서는 다행스럽게 평양과 대구에 관립사범학교를 둔다고 공포됐다.

평양과 대구에 관립사범학교가 설치된 이유는 두 지역이 1905년 개통한 경부선으로 인해 접근성과 경제성이 높아진 대도시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경부선이 관통하는 내륙북부도시로 평양은 제2의 도시였고, 대구는 경부선 설치 이후 일본인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고 삼남지역을 대표하는 남부도시였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여러 교육시설들이 먼저 경성, 그리고 평양과 함께 대구에 들어섰다.

관립대구사범학교는 기존에 교원의 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3년제 특과대신에 5년제 심상과를 주요 과정으로 설치하고 그 외에 2년제의 연습과, 1년제 강습과 등을 뒀다. 그래서 고등보통학교와 동등한 중등과정으로 만들었다. 경성사범학교가 전문학교로 승격하고 난 다음 해인 1944년에 평양사범학교와 함께 대구사범학교도 전문학교로 승격했다.

1935년까지는 경성과 평양, 대구에만 관립사범학교가 있다가, 조선총

---

74) 渡邊豊日子, 「朝鮮教育の側面觀」, 1934. :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 편찬위원회 기획, 앞의 책, 353쪽에서 재인용.



독부가 초등학교 확충계획을 세우면서 1936년부터 조선의 각 도에 걸쳐 관립사범학교를 서서히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일전쟁이 시작된 후 조선총독부가 황국신민 양성을 교육목표로 내걸면서 사범학교 교육방침도 황민화 정책을 강조했다. “교육칙어의 취지에 기초”하고, “국체의 존엄한 소이를 터득”하고 “황국신민”의 지조를 진작하고, “황국신민의 지조”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일본에서 일찍이 교육칙어 작성에 참가했고 문부대신을 지냈던 이노우에[井上毅]가 교사를 보편적인 국가에 복무하는 자라기보다 일본의 천황과 황실에 복무하는 “교육칙어의 實現者”로 보는 관점<sup>75)</sup>과 관계가 깊다.

그나마 1938년 사범학교 규정에 남아있던 “순량한 인격”, “순량정숙한 인격” 같은 품성 요소나 ‘교수법 학습’, ‘학생들의 처지와 특성 고려’, ‘교과 간 연합 모색’과 같은 교수 관련 조항들은 1943년 교육방침에서 완전히 없었다. 대신 “황국의 도의 선구자[皇國の道の先達]”, “一視同仁”, “皇謨翊贊”, ‘국가를 위해 교직에 투신’, “國民鍊成”, “學校一體”, ‘지방산업 파악’과 같이 황국신민임을 더욱 노골화하거나 전체주의적 또는 기능주의적 시각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교육방침으로 대거 삽입되었다.<sup>76)</sup>

대구사범학교에서도 국가동원체제 아래서 1938년 학교의 교육방침을 재천명했다. (1) 「황국신민의 선서」를 철저히 실천구현하고 충량유위한 황국신민이 되도록 할 것 (2) 「교육 삼대강령」을 일상생활화하도록 힘쓰고, 교육보국의 소질을 배양할 것 (3) 국가총동원의 진의를 파악해서 멸사봉공의 이념을 견고히 할 것 (4) 시국의 추이, 국제의 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皇道宣揚의 의기를 드높일 것 (5) 皇軍將兵의 忠勇義烈에 감사하고 충후보국의 赤誠을 진작시킬 것. 그리고 행사를 할 때나 학과목 지도를 할 때, 그리고 환경을 통제하거나 시설을 운영할 때, 항상 이 다

75) 船寄俊雄, 近現代日本教員史研究會, 『近代日本教員史研究』, 風間書房, 2022, 75쪽.

76) 관보 호의 1938년 3월 15일, 사범학교 규정 ; 관보 1943년 3월 27일 사범학교 규정 : 하스이케 시게요(蓮池重代), 「일제강점기 사범학교 교육과정 연구- 교육과(敎育科)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셋 가지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sup>77)</sup> 대구사범학교의 교육방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수업과 신사참배, 근로동원 등 다양한 일상 속에서 구현되었다. 학생들은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일을 하고, 군사훈련에 참가했으며, 수많은 의례들에 참석해야 했다. ‘통일성’, ‘완전성’을 기 하겠다던 관립사범학교의 교육은 확실히 조선총독부의 통제 아래 들어 왔다.

그렇다고 사범학교의 조선인 교사들과 학생들이 식민권력자들의 의지 대로 ‘순량’하게 순응만 할 리는 없었다. 1931년에 발각된 비밀결사조직, 1939년 강제근로동원과 조선학생 차별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이른바 “왜관사건”, 1941년에 발각돼 졸업생과 재학생 등 300여 명이 연행된 독서회 및 비밀결사사건, 1943년에 실체가 드러난 “無憂園”사건, 이후로도 해방 때까지 이어졌던 항일운동<sup>78)</sup>은 조선총독부의 교육방침과 달리 사범학교 학생들이 황국신민의 모범생에 머물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적극 가담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었다. 경성사범학교와 비교하자면 확실히 대구사범학교의 분위기는 일제가 불온시한 항일 정서가 훨씬 강했다.

77) 大邱師範學校, 「國家總動員時下新教育令に基く本校教育要綱」, 1938.7, 15-16쪽.

78) 이장환, 「대구사범학교 심상과의 발자취」, 『대구사범심상과지』, 대구사범심상과 동문회, 1991, 157-212쪽 ; 이종기, 「심상과의 분수령 제13기」, 『대구사범심상과지』, 대구사범심상과 동문회, 1991, 328-330쪽 ; 조규설, 그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다, 『대구사범심상과지』, 대구사범심상과 동문회, 1991, 253-266쪽 ; 허중, 앞의 논문 ; 허중, 『대구학생독립운동사』,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 2024, 180-185, 222-249쪽 ; 이경숙, 앞의 논문.

<관립사범학교 학생 수의 변동>

관립사범 민족별 학생수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전국	-	-	683	612	949	691	1,018	708	1,138	753	1,305	795	1,483	951	
경성	186	576	194	572	214	559	211	563	283	669	417	683	236	627	
대구	235	54	296	24	379	73	408	80	441	40	453	62	513	114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1,980	1,192	2,084	1,574	2,781	2,178	3,078	2,475	4,410	2,281	5,403	2,081	6,033	2,137	7,482	3,473
247	665	275	833	347	840	282	799	399	700	428	657	459	641	520	930
560	77	502	138	482	207	467	315	516	203	591	214	586	247	533	346

\*출처 : 국가통계포털 참고.

## V. 맺으며

이 글은 근대적 사범교육이 도입된 시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대구지역 사범교육의 체제와 교육방침을 통해 사범교육이 양성하고자 한 인물상을 분석하였다. 근대 사범교육의 역사를 고찰하기 위해 관공립사범학교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사범교육과정들까지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다양한 사범교육과정을 포함한 이유는 첫째 제도의 ‘완전성’을 근거로 민간의 노력을 폄하하던 식민권력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민간 사범교육을 발굴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사범교육이 지나치게 국가주의화된 현상에 대해 반성하기 위해서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05년 전후하여 지역에서는 애국계몽운동 차원에서 관과 민이 협조하여 사립사범학교, 부설 사범과, 교원속성과 등 다양한 형태로 사범교육을 시도하였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사범교육과정들은 지역의 사회문화적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 중 대구지역에서는 1906년 관과 민이 합심하여 사립대구사범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문명화의 소명 아래 사범학교 학생들을 장차

문명화를 전달하는 전령으로 키우려던 꿈은 군부의 명령에 의해 간단히 부서졌다.

둘째 대구지역에서는 북장로교 중심의 개신교 차원에서도 서구식 사범교육들을 도입했다. 그러나 대구지역 중등 미션스쿨인 계성학교 부설 사범과는 직접적으로 인원부족으로 문을 닫았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들은 간접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사립학교 정책과 교사임용 개입 등으로 사범교육과정을 운영하기는 어려웠다. 대신 성경학교, 주일학교 같은 각종 종교활동을 통해 주로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들의 아동관과 교수법을 전파했다. 선교사들은 조선의 교육을 개선의 대상으로 삼고 미국식 사범교육을 새로운 표준으로 삼는 서구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셋째, 삼일운동을 계기로 사범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 지역의 경비로 운영하는 공립사범학교들이 비로소 만들어졌다. 공립사범학교는 우선적으로는 ‘국가의 지조’ ‘국어숙달’과 같은 일본의 국민으로서 의무에 충실할 것을 주요 교육방침으로 삼았다. 대구에는 경상북도공립사범학교가 1923년에 설립되었다. 경북사범학교는 1927년에 페스탈로치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할 만큼 페스탈로치를 이상적 교사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당시 페스탈로치에 대한 이해방식이 주로 국가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조선총독부는 공립사범학교를 각 지역에 설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립사범학교들이 질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또 사상적으로도 문제라 보고 폐지 수순을 밟았다. 식민지 조선의 공립학교들은 식민권력에 의해 쉽사리 폐지 결정이 날 만큼 구조가 취약했다.

넷째, 1929년 공립사범학교 폐지 결정 후, 조선총독부는 기설의 관립 경성사범학교 외에 평양과 대구에 각각 관립사범학교를 설립했다. 관립사범학교의 교육방침은 제국 본국보다 식민지에서 더욱 국가주의적 입장을 뚜렷이 하면서, 학생들을 교육칙어의 구현자로, 모범적인 황국신민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38년 교육방침에는 ‘교육칙어’, ‘황국신민’, ‘국체’ 따위를 명시하고 1943년에는 교수법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노골적으로 전쟁 동원을 염두에 둔 친황중심적 제국주의를 사범

학교 교육에 관철시키고자 했다. 관립대구사범학교 역시 그런 교육방침을 구체화하였으며 일상에서 교육방침을 실천했다. 일제는 민간 사범교육에 담긴 사상이나 의식은 거세하고, 관공립사범학교를 통해 ‘순량’한 모범적 황국신민을 양성하고자 했고 그에 어긋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쫓아내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사범교육이 사회문화적 문명화 요구에서 출발해 점차 식민지 통치를 위한 효과적 기능인 양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제는 자주 제도의 불완전성, 실력의 저열함, 학생이나 교사들의 불온함 따위를 문제 삼았다. 이 속에서 식민지와 지역은 곧잘 제국 본국이나 식민지 중앙에 대비해 불완전한 것으로 취급당했다. 제도의 완비, 더 나은 제도를 향한 개선 노력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마치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면 불량하거나 불온하다는 권력자의 시선은 삶의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시도들을 차단하고 억압하게 된다. 불완전했지만 지역의 사범교육은 지역민들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기대했던 꿈, 교과 지식이나 교수법으로 축소될 수 없는 식민지 지역민들의 꿈이었다.

※ 이 논문은 2024년 01월 2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2월 28일부터 03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3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관보, 경성일보, 대한매일신보, 대한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신한민보, 제국신문, 중외일보, 조선일보, 황성신문 등 각 신문의 해당일자 해당기사.
- 大邱師範學校, 「國家總動員時下新教育令に基づく本校教育要綱」, 1938.7.
- 「大正13年2月 公立師範學校長會議諮問並聽取事項答申書」, 1924.2.
- 계성학교, 「계성학보」 1-2, 1913-1914.
- J.E. Adams, 「Digest of Answers received from members of the educational commission, Seoul Conference - Education, Literature」, 1913년(?).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소장.
- 계성오십년사편찬위원회, 『계성오십년사』, 1956.
- 김영우, 『한국근대교원교육사 I』, 정민사, 1986.
- 김유태, 「西友師範學校徒歌」, 『서우』 4, 서우학회, 1907.3.1.
- 김태웅, 「일제하 관립전문학교의 운영 기조와 위상 변화」, 『연희전문학교의 학문과 동아시아 대학』, 혜안, 2016.
- 김형목, 「대구광문사의 문화계몽운동과 김광제 위상」, 『중앙사론』 44,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6.
- 김효정, 「한말 민립 사범학교의 설립과 교육구국운동」,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5.
- 대구사범심상과 동문회, 『대구사범심상과지』, 1991.
-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 편찬위원회 기획, 강명숙 등 편역, 『교육정책(2)-일제강점기 교육 논설』, 2021.
- 박은식, 「師範養成의 急務」, 『서우』 5, 서우학회, 1907.
- 신명오십년사편집위원회, 『신명오십년사』, 1957.
- 안홍선,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4.
- 윌리엄 베어드,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리포트 1』 95,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6.
- 윤정란, 「근대전환기 서구 기독교윤리 교육을 위한 주일학교의 아동중심교육학 도입」, 『기독교사회윤리』 47,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20.

- 이경숙, 「전시체제기 대구사범학교 학생일기분석」, 『한국교육사학』 41(1), 한국교육사학회, 2019.
- 이명화, 「최광옥선생과 위대한 유산」, 『생활과학논집』 18,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04.
- 이성전(글), 서정민, 가미야마 미나코 옮김, 『미국선교사와 한국근대교육』,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 이윤진, 「1910년대 개신교 주일학교의 교육활동」, 『한국교육사학』 30(2), 한국교육사학회, 2008.
- 이인숙, 「근대기 대구의 서화 후원자 이종면, 이근상 부자의 ‘오정 소정 켄렉션’ 연구」, 『영남학』 3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6.
- 장응진, 「我國國民教育의 振興策」, 『태극학보』 3, 태극학회, 1906.
- 조정봉, 「일제하 “하기 아동성경학교”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교육철학』 23, 한국교육철학회, 2003.
- 최우철, 「1911~1913년 경성지역 천주교 사범교육 성격 연구-송신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43(1), 한국교육사학회, 2021.
- 클라라 헤드버그 브루엔 수집 및 정리, 『100년 은혜, 세상과 나누리』 2-3, 기독교문사, 2014.
- 하스이케 시게요(蓮池重代), 「일제강점기 사범학교 교육과정 연구-교육과(教育科)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18.
- 허중, 『대구학생독립운동사』,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 2024.
- 황현 지음, 허경진 옮김, 『매천야록』, 서해문집, 2016.
- 朴永奎, 「植民地朝鮮における教員養成に關する研究」, 九州大學 博士論文, 2005.
- 繼雄稻葉, 「植民地朝鮮の道立師範学校」, 『大学院教育学研究紀要』 13, 2011.
- 寺岡聖豪, 「1920年代日本におけるペスタロッチの影響」, 『福岡教育大学紀要』 55(4), 2006.
- 船寄俊雄, 近現代日本教員史研究會, 『近代日本教員史研究』. 風間書房, 2022.
- 佐藤広美, 『植民地支配と教育学』, 皓星社, 2018.
- J. Zimmerman, *Innocents Abroad*,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 R.O. Reiner, *Th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Modern Public Education in Kore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31.

Abstract

## From Civilizational Messengers to Exemplary Subjects of the Japanese Empire (皇國臣民)

: A Case Study of Modern Teacher Education in the Daegu Region

Lee, Kyung-sook

This article explores the system and policies of teacher education in Daegu, from the advent of modern education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analyzes the character traits that the education system and policies sought to instill. The research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1906, the governor and Gwangmunsa joined forces to establish the private Daegu Normal School. This institution aimed to train teachers who would serve as messengers of civilization, responding to the call for enlightenment. In addition to this, there were teacher education programs influenced by Christianity among other forms of private education. American missionaries endeavored to impart their American-style views on children and teaching methods to the local population through mission schools, Bible schools, and Sunday schools.

In contrast, following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Daegu established the Gyeongsangbuk-do Public Normal School in 1923. However, due to the low caliber of students and financial constraint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bolished public normal schools in 1929, replacing them with government-run normal schools in Pyongyang and Daegu. Both public and government-run normal



schools aimed to mold students into exemplary Subjects of the Japanese Empire(皇國臣民, Hwangguk Sinmin) through educational policies such as “realizers of the Educational Decree” and “pioneers of the Japan imperial way”.

**keywords :**

Daegu Normal School, Gyeongsangbuk-do Public Normal School, exemplary Subjects of the Japanese Empire(皇國臣民, Hwangguk Sinmin), teacher education in Christianity.

